

열린 갤러리, 패션과 사진을 품다



이설제 작 '나르시시즘'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무등갤러리에서 'Fashion+Photography 콜라보레이션 전'을 진행하는 사진작가 이설제씨와 디자이너 김현희씨.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1일 두차례 패션쇼...사진전도 열어
“편안하면서 세련된 의상 선 보일 것”

무등갤러리 10~16일 디자이너 김현희 사진작가 이설제 콜라보레이션 전

패션과 사진이 만났다. 갤러리가 패션쇼장으로 변신하고 디자이너가 제작한 의상을 촬영한 사진 작품들도 전시된다.

기존의 갤러리 기능과 함께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복합문화공간으로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무등갤러리가 기획전 준비했다. 올 상반기 화가 강운, 미디어아트리스트 박상화, 무용가 이숙영의 협업 작업 '숨결'에 이은 두번째 시도는 패션과 사진의 만남이다.

'Fashion+Photography 콜라보레이션 전'이 10일부터 16일까지 열린다. 11일 오후 4시와 7시에는 두차례 패션쇼도 준비했다. 최근 광주에서 패션쇼를 거의 볼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갤러리에서 만나는 이번 패션쇼는 흥미로운 기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초대된 이는 패션디자이너 김현희씨와 사진작가 이설제씨다. 전남대 의류학과 출신인 김씨는 서울 '랑유 김정아'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했고 1999년부터 '김현희 Classic'을 운영하고 있다.

“예전 근무했던 회사가 1년에 패션쇼만 10여차례 하던 곳이었어요. 이탈리아 패션쇼 스태프로 참여하기도 했

죠. 아이가 올해 대학에 들어가면서 막연하게 내 작업을 정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올 봄 제안을 받았을 때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많았는데 어렸을 때부터 늘 해왔던 일인데 즐겁고 재미있게 하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작품이 하나 하나 나올 때 불안감이 들었죠. 하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오 재미있는데”라는 생각도 들고 완성작이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김씨는 '유희'를 주제로 디자인 작업을 진행했다. 모티브는 헤르만 헤세의 '유리알 유희'에서 따왔다. 여러가지 학문과 예술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며 논다는 '유희'의 의미처럼, 다른 것들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고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이끌어 내는 건 의상 역시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옷감과 컬러, 제작 방법 등을 다양하게 조합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은 흥미로웠다.

공동작업을 진행하는 이설제 사진 작가는 오래 전 '모델라인'에서 패션사진과 패션 쇼 연출을 진행한 적이 있어 디자이너와의 작업이 친숙하다.

“이번 패션 사진 작업은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작업들에

비하면 스냅 사진 느낌이지. 가끔은 메이크업이나 패션 분야와 콜라보를 해보고 싶었어요. 처음 김선생을 만났을 때 '아름답게 작업합시다'라고 하는데 그말이 참 좋더라고요. 스튜디오에서는 옷의 디테일에 집중해 사진을 찍고,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의상은 거리에서 촬영했습니다.”

김씨가 이번 패션쇼에서 준비한 의상은 코트와 치마, 바지 등 25벌이다. 서울 활동하는 모델 7명이 직접 무대에서 서며 쇼 연출은 이씨가 맡았다.

“패션쇼를 하려면 신경써야 할 부분이 한 두가지가 아닌데 이 선생님과 작업하는 덕에 제가 만드는 옷에만 집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번에 선보이는 의상은 편안하고 세련된 느낌의 의상이에요. 1부는 블랙과 화이트를 기본으로 한 의상을 선보이고 2부는 유희 컬러인 마르셀라를 중심으로 다양한 색깔과 텍스처를 조합했습니다.”

갤러리는 정통 쇼를 하기에는 불편한 공간이지만 오히려 색다른 모습을 연출할 수 있는 묘미가 있다. 이번 패션쇼는 무대를 갤러리 밖 로비 공간까지 끌어내 예술의 거리를 지나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씨는 의상을 촬영한 작품 이외에도 '나르시시즘'을 소재로 작업한 작품들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문의 062-236-252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롯데갤러리 '집에 대한 단상'展

1월 4일까지 연말기획전...지역작가 8명 출품

광주롯데갤러리가 연말특별기획 'Homescape-집에 대한 단상'전을 2016년 1월4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권인경, 김경주, 모준석, 이갑재, 이민경, 이정민, 주연, 최순민 등 작가 8명이 참여한다.

작가들은 집에 대한 기억과 이미지를 회화, 입체, 영상으로 형상화한 작품 30여점을 선보인다. 집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나름의 가치관에 따라 형상화함으로써 집이 지니는 공간적, 내용적 의미를 재구성했다.

권인경 작가는 작품 '경계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물과 풍경이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혼재된 모습을 보여준다. 중앙에 바위산이 있고, 그 주변으로 푸른 강물과 아스팔트 도로, 빌딩이 위치하고 있다. 작가는 이 창조적 공간을 'heartland'(심장부)라 지칭하고 불안한 현실 속에서 벗어나 이상적인 공간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질적 고민을 드러낸다.

모준석 작가는 동선이나 동파이프, 스테인드글라스를 주제로 삼아 집을 형상화했다. 작품 '우리의 여정' 등은 수많은 집들이 모여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모준석 작 '우리의 여정'

있다. 속이 텅빈 집들이 서로 포개지며 어우러지는 마을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한편, 롯데갤러리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가족, 친구, 연인 등 소중한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는 '사랑의 엽서 쓰기'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의 062-221-1807.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동티모르 작가' 강종열 개인전



'Camellia'

19일까지 아트타운갤러리

2004년부터 필리핀과 동티모르 등 제 3세계 국가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으며 '동티모르 작가'로 주목받았던 강종열 작가가 19일까지 아트타운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한다.

여수 출신인 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동백의 아름다움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Camellia'(동백) 연작을 선보인다. 새롭게 선보이는 'Camellia' 시리즈는 특유의 방법으로 동백을 강렬하면서도 수줍게 묘사하고 있다.

캔버스가 팔레트처럼 보일 정도로 두터운 붓터치가 인상적인 작품들은 녹색

숲을 연상시킨다. 화폭에 빨간 물감을 흠뻑린듯 군데군데 피어있는 빨간 동백들은 색의 대비로 인해 한결 생생하게 다가온다.

강씨는 그림의 소재들이 빛에 의해 어떻게 달라보이는지 인상파적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일상에서 만난 동백나무 숲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면에서 숨은 진실된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

강씨는 순양예술상(2010), 장리석상(2014)을 수상했으며 지난 2005년 화집 '동티모르를 가다'를 출간했다.

문의 062-232-714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亞문화전당 11일 씨네콘서트 '겨울, 영화를 노래하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방선규)은 11일 오후 7시30분에 '영화평론가 전찬일과 팡페라 가수 김선희의 명품 씨네콘서트 2015년 겨울, 영화를 노래하다'를 개최한다. 행사는 일방적인 강연에서 벗어나 영화와 영화음악이라는 친근한 장르를 통해 아시아 문화를 새롭게 보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됐다.

영화평론가 전찬일 부산국제영화제 연구소장은 8개 영화의 메인테마나 핵심적인 장면을 어떻게 인문학적으

로 감정을 읽어내야 하는 지 해설한다. 팡페라 가수 김선희씨는 영화의 주요 테마곡을 들려준다.

이번 콘서트에서 다루지는 영화는 시네마천국, 레미제라블,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국가대표, 러브레터 등 8편이다. 공연장소는 문화전당 내 문화정보원 지하 3층 극장3. 참가비는 무료. 문화전당 홈페이지(www.acc.go.kr)에서 참가신청을 하면된다. 문의 062-601-4048.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올 겨울은 참나무 장작으로 뜨끈뜨끈 하게~

대한임업(주)은 대량생산으로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12월 한정판매
오픈기념 행사 2+1
 쪼갬목, 절단목



주문상담 ☎ (061)374-1234 화순 이양농공단지내

| 국내산 참나무 장작 | 쪼갬목 | 절단목 | 캠핑용 장작 |